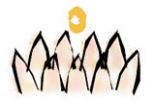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그렇게...



무상사 일요 참선법회

"Put your hands on your belly... and just look inside and have your self-questions(두 손을 배위에 얹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참 나'에게 질문해보세요.)"

故 승산 스님(前 화계사 조실, 1927~2004)의 제자 중 몇 안 되는 흑인제자인 관행 스님이 입승으로 충청남도 계룡시 무상사 선원동에서 참선을 지도한다. 새로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준다.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진은 매주 일요일 승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외국인 스님들이 주관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관음선원 창시자인 승산 스님은 "선은 '모르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절을 하거나 염불을 할 때, 또는 앉아서 명상을 할 때, 항상 이 '모르는 마음'을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이곳 무상사 선방에 '모르는 마음'을 갖기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 미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15명의 수행자들은 각자 준비한 법복을 차려입고 조용히 좌복을 깔아놓은 뒤 참선에 든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것을 보니 마치 '참선 올림픽'을 하는 것 같다.

나도 한 보살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조용히 좌선에 들러는 순간 아차 싶었다.

'아! 사진을 먼저 찍고 앉을 걸... 지금이라도 찍을까? 수행하는 걸 방해하면 싫어할텐데...'

취재차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라 현장감을 살리려는 사진들이 꼭 필요하다. 좌복에 앉자마자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이따 쉬는 시간에 참여자들에게 요청한 뒤 설정사진을 찍을까? 아니면 지금 찍을까? 지금은 시작하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참선에 집중이 안 될거야. 아니면 나중에 참선에 몰입한 모습을 찍을까?...' 등. 선방에 더 빨리 도착해 수행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만 질책한다.

참선 수행자들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면 양해를 구하는 표시를 한 뒤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도 함께 하니 부담이 됐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힌 서양인이 한국불교를 배우러 왔는데,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기억만 갖고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어라 모르겠다. 그냥 찍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반짝 일어나 수행자들의 참선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숨소리, 발자국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은 뒤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숨을 참고 자세를 구부리고 사진을 찍어서인지 숨을 헐떡였다. 이 소리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 조심하 숨 고르기만 하다 첫 번째 참선 시간이 끝났다. 5분 포행을 한 뒤 또 다시 참선에 들었다.

이렇게 참선 30분, 포행 5분을 2회씩 한 뒤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과 관행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좌)과 관행 스님(우)이 일요 참선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

선 수행 할 때 마음 속 어떠한 생각에도 '착'을 두지 말고 그대로 맡겨 흘러가게 놔둬라

”

뿐'을 강조하며 일화를 들려준다.

미국의 선 센터에서 수행을 하던 관행 스님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수행은 제쳐두고 수도관부터 고쳐야 될 상황에 처했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승산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기에 스님은 밤새 수도관에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에만 집중했다. 평소 소라면 "내가 왜 이 걸 해야 하나. 수행해야



대전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틱·알렉스·케빈(왼쪽부터).

하는데...'하며 망상이 밀려왔을 테지만 오직 수도관을 고치는 데에만 '집중'을 하니 짜증과 분노가 생기는커녕 즐겁게 수도관을 고쳤다고 한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산 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러는데 뒤에 줄을 선 사람이 새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죠?"

관행 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할 뿐'만을 강조했다. "내가 상점에서 온 목적은 오직 물건만을 살 뿐이에요. 그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타인이 새치기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주와 객으로 나누는 마음을 갖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상(相)'을 세우기에 분노와 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선 수행을 할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에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대로 맡겨 흘러가게 놔둬라"며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안정을 찾고 싶어" 이러한 생각도 모두 집착이니 오로지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해서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의 마음으로 일하라 (Just do it)"고 강조했다.

#한국에 온 수행자들

아시아에 많은 불교 국가들이 있지만, 왜 이들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와서 참선수행을 하게 됐는지 그 인연이 궁금하고 신기했다.

대봉 스님의 법문 시간에 질문을 했던 윌리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영어교사로 한국에 온지 6년째다.

그는 "10년 전에 고향에서 우연히 한국 불교를 접하게 됐고, 한국에 일을 하러 오게 되면서 한국 스님에게 무상사를 소개받고 일요참선에 참석하게 됐다"며 "참선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올 생각이다. 오늘 당신이 사진을 찍은 것은 나에게 경계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참선 중간에 쉬는 시간, 법문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붙어 다니는 세 청년이 눈에 띄었다. 알렉스(22·말레이시아, 틱(23·라오스), 케빈(21·인도네시아)은 대전대학교에서 교육하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국제교류프로그램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청년들이다.

알렉스는 특이한 불자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에 와서도 절, 참선 수행 정진을 계속 한다고 한다. 그는 "무상사가 대전에서 버스타고 1시간 거리에 있지만 매주 일요참선에 참석한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줘 오늘 케빈을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케빈은 이슬람교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이지만 집안이 불교라 평소 참선을 해왔다고 한다.

6개월 전 라오스에서 스님으로 지내다가 한국에 IT관련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온 틱은 "라오에서도 항상 수행을 해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매우 좋다. 10월 2~4일 무상사에서 하는 추석 참선 정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힘이 들 텐데 매주 사람을 찾아 수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선수행을 하는 것이라 솔직히 '내가 얻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만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참선 전 나는 좌복 위에 앉아 전전공공하며 사진촬영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행동이 법문의 주제가 됐고 참선한 대중들에게 좋은 교훈(?)이 됐다.

어차피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을 나는 속으로 애태우며 망상을 피운 것이다. 스님의 법문대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의 마음으로 그냥 사진을 찍고 그냥 참선을 했다더라면 가슴 졸이는 일 없이 수월하게 했을 텐데 말이다. 이것도 다 지나간 일이다. 현재에 집중해 나는 오직 기사만 써야 할 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무상사는 매주 일요일 故승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외국인 스님들이 주관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과 밖이 뭐죠? (What's inside, what's outside?)

관행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 대봉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시간으로 구성된 시간이었다. 그날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던져준 셈이 됐다.

미국에서 온 윌리엄(37·영어교사)이 "일요마다 참선을 하는데 오를 참선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내면으로의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 물었다. 순간 미안하면서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대봉 스님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 "What's inside, what's outside?, What's the boundary? (인과 밖이 뭐죠? 우리가 부르는 그 인과 밖의 경계는 무엇이었죠?)" 순간 대중들의 표정은 황당해 하는 듯 했다.

스님은 "분별하는 마음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다. 지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만 한다.

태양은 아무 불평 없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물 또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 분별하는 마음,

#오직 할 뿐(Only just do it)
관행 스님은 참선 수행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오직 할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전

국내 초유일의 **부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완결봉안 해**

동참접수: 2009년 5월~ 9월 5일 | 정안식: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특허허가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사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림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월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봉안식)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털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